

축구남북전

2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제3185호

“주심이 경기 자주 끊어 원하던 결과 얻지 못해”



●파울루 벤투 감독 코멘트 = “주심이 경기를 자주 끊으면서 중단된 시간이 많아 평상시 경기와 다르게 전개됐다. 아쉽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현재 조1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조1위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나온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추가 질문 없이 기자회견은 종료됐다)

남북축구 대결의 역사

17차례 붙어 7승9무1패 벤투, 외인 3번째 남북전

한국과 북한의 A매치(대표팀간 경기)는 15일 평양에서 열린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H조 3차전(0-0 무승부)을 포함해 지난 40여 년 동안 총 17차례 열려 7승9무1패를 기록했다. 파란만장했던 남북한 축구대결의 역사를 되돌아본다.

●상상 첫 남북전

남북한은 1978년 12월 20일 열린 방콕아시아 게임 남자축구 결승에서 운명처럼 만났다. 당시만 하더라도 지면 끝나는 사생결단의 승부였다. 특히 정권 차원에서 승부에 민감하게 반응해 선수단의 각오는 남다른 수밖에 없었다. 다행인지는 몰라도 양 팀은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득점 없이 비기며 공동 우승을 차지했다.

●월드컵 지역예선 충돌

한국은 1989년 10월 1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이탈리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에서 황선홍의 헤딩 결승골로 1-0으로 이겼다. 4년 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1994미국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도 고정은, 황선홍, 하석주의 릴레이 골로 북한을 3-0으로 물리쳤다. 2010남아공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선 3차 예선에 이어 최종 예선에서도 같은 조에 편성돼 4경기 연속으로 맞붙었다. 처음 3경기를 잇따라 비긴 가운데 한국은 최종예선 홈경기에서 김치우의 결승골로 1-0으로 간신히 이겼다. 그리고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또 다시 한조에 편성돼 평양 원정에서 득점 없이 비졌다.

●남북통일축구

1990년에는 평양과 서울을 오가는 사상 최초의 대표팀 교환 경기가 열렸다. ‘남북통일 축구’로 이름 붙여진 이 대회의 결과는 1승 1패였다. 한국은 평양에서 1-2로 지면서 통산 첫 패배를 기록했고, 잠실에서 1-0으로 실욕했다.

●남북전 벤치 앉은 외국인 사령탑

남북전 첫 외국인 사령탑은 네덜란드 출신 조 본프레레 감독이다. 2005년 8월 전주에서 열린 동아시아연맹선수권에서 본프레레호는 북한과 0-0으로 비겼다. 두 번째 외국인 사령탑은 독일 출신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었다. 슈틸리케가 이끈 한국은 2015년 8월 중국 우한에서 열린 동아시아연맹선수권 북한전에서 득점 없이 비졌다. 평양 원정에 나선 포르투갈 출신 파울루 벤투 감독은 역대 3번째 외국인 사령탑이자 월드컵 예선에 나선 첫 번째 감독이다. 최현길 기자 choiing2@donga.com

편집 | 인도영 기자 do02@donga.com

벤투호 평양 원정대, 국제사회 대북제재속 비용 결제는 어떻게?

고려호텔 2박 1200만 원...외국 카드는 불통!

(대한민국 선수단 2박 숙박 요금)

정상적인 서비스 대가는 지불 가능
고려호텔 2인1실 1박당 21만 원꼴
외국 신용카드 사용 못해 달러 결제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은 14일부터 16일까지 북한 원정 스키장을 소화하고 있다.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태극전사들은 15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펼쳐진 북한과의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원정 3차전을 위해 2박 3일의 초단기 원정을 떠났다.

1990남북통일축구대회 이후 29년 만에 이뤄진 남자축구대표팀의 평양 방문은 결코 쉽지 않았다. 유로로 2시간 남짓한 거리를 돌고 돌았다. 북한이 전세계도 거부해 중국 베이징을 거쳤다.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지역으로 대표팀을 파견한 대한축구협회는 오래전부터 선수단이 ‘해야 할 것’과 ‘해도 되는 것’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숙지하며 원정 준비를 진행했다.

가장 큰 걱정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 사안이었다. 미국산 노트북과 태블릿PC,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음을 물론, 경기를 마치고 흔히 이뤄지는 세리머니인 유니폼 교환도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접했다. 우리 대표팀 공식 후원사는 미국 스포츠 용품 업체 나이키다. 심지어 대표팀에게 ‘단 하나의 물품도 (경기장, 숙소) 남겨놓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원정 비용이다. 서울-베이징-평양 노선은 중국 에어차이나 항공을 이용해 문제 없지만 숙박비가 걱정이었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초청료가 없는 월드컵 예선 등의 국제대회는 원정 선수단이 항공-



한국 축구대표팀 손흥민(왼쪽)이 15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H조 3차전 원정경기에서 북한의 수비 사이로 패스를 시도하고 있다. 남북 대결은 0-0 무승부로 끝났다. 경기 후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이날 주심은 경고를 주느라 양 팀 골키퍼 보다 바빴다”고 소식을 전했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숙박을 자체 해결하도록 했다.

선수단은 평양 최대 변화가 창광거리의 고급숙소인 고려호텔에 투숙했는데 북한은 2인 1실 기준, 1박당 180달러(약 21만 원)를 제시했다. 코칭스태프와 협회 임원, 선수 일부가 혼자 방을 썼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아도 숙박비(2박)만 1만 달러(약 12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 당연히 협회는 비용 지불 가능 여부를 정부에 질

의했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은 제재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북한을 관광하며 숙식을 해결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다. 북한에선 외국 금융기관이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손쉬운 거래방식인 은행 송금마저 불가해 현장에서 현금결제야 필요하다.

이에 협회는 선수단에 달러화를 챙겨 보냈다는 후문이다. 꽤 오래 전에도 대표팀은 전 세계가 제재에 나선 이란을 방문했을 당시 신용카드 제한으로 애를 먹었다.

협회 관계자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단 북한 내에서 숙박 이외 현금 지출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여러 모로 제약과 어려움이 많은 합계원정”이라고 귀띔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느려터진 인터넷·답신 없는 메일·AFC 감독관이 경기내용 전달

준비 안된 북한, 홈 개최권 쥐야하나

경기영상은 선수단 귀국편에 전달
북한 비협조에 국내 취재진만 진땀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 한국 축구국가대표팀은 15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H조 3차전 북한과 원정경기를 가졌다. 북한 당국은 한국 선수단 55명과 이들과 동행한 한국 정부 관계자 몇 명을 제외하고는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다. 경기뿐 아니라 선수단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곳은 통일부와 대한축구협회로 한정됐다.

통일부는 경기 당일 오전 “경기장 내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고, 경기 장면이 담긴 DVD도 북한측으로부터 제공을 받기로 했다. 경기와 관련된 소식도 인터넷으로 국내로 전달이 가능할 것 같다”며 “경기장편이 담긴 DVD는 선수단이 귀국하는 편에 함께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선수단은 16일 자정께 한국에 도착한다.

하지만 통일부의 발표 내용과 실재는 거리가 있었다. 선수단과 동행한 축구협회 관계자가 경기장에 도착해 인터넷을 활용해 발송한 메일은 한국에서 확인이 가능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달 속도가 매우 떨어졌다. TV 생중계가

무산된 상황이라 축구협회가 인터넷을 활용해 경기 상황 등을 국내로 신속하게 전달하려면 계획은 틀어졌다. 반대로 한국에 있는 축구협회 직원이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직원에 보낸 메일은 전혀 답신이 이뤄지지 않았다. 계속 확인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이에 축구협회는 아시아축구연맹(AFC) 경기감독관이 AFC 본부로 전달한 소식을 취합해 국내 언론과 축구협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축구협회 직원이 촬영한 경기판 사진도 전송은 쉽지 않았다. 축구협회는 해당 경기 감독관에게 받은 사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얻은 사진을 국내 취재진에게 제공하고 SNS에 올렸다.

국제축구연맹(FIFA)과 AFC는 월드컵 예선전과 같은 공식대회에서는 개최국 축구협회에게 미디어센터 설치와 인터넷 활용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놓도록 권고하고 있다. FIFA와 AFC의 규정에는 ‘반드시’라는 강제 조항은 없다. 그러나 미디어관 제자를 포함한 다양한 인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개최국 축구협회가 최대한 협조해줘야 하는 게 기본이다.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FIFA나 AFC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서의 준비는 충족돼야 하지만 북한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북한에게 계속 홈경기 개최권을 쥐어줄지 의문이다. FIFA와 AFC가 가법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한국이 최종예선에서도 또 다시 북한과 한 조에 묶인다면 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최영석 기자 gjyong@donga.com

BBC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축구 더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외신들도 황당해 한 북한의 통제

중계도 없고 외국인도 관전 못해
지난달 평양 원정 다녀온 레바논 축구매체 SNS에 ‘데자뷰’ 공감

15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북한의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H조 3라운드를 향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뭔가 엉성하다. 29년 만에 반복한 태극전사들의 소

식을 전달해줄 미디어도 없고, “대~한민국”을 외치는 붉은악마 역시 없었다.

TV 생중계마저 불발됐다. 월드컵 1·2차 예선은 홈팀 협회가 중계권을 판매할 수 있으나 북한은 어느 하나 허용하지 않았다. 13일 비자 발급처인 중국 베이징으로 떠나 14일 평양에 입성한 대표팀은 이후 8시간 가까이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다.

제때 입국했는지, 출발사태는 없었는지 어떻게 이동했고 불편함은 없는지 따위의 소소한 소식조차 들지 못한 대한축구협회 임·직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

력했다. 휴대전화로 중국에 놓고 간 선수단과 연락할 길이 없었고, 유일한 창구는 평양에 파견된 아시아축구연맹(AFC) 담당자였다. 외신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특히 냉정했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축구 더비에 오신 것을 환영 한다’는 제목의 기사는 “경색국면인 남북은 흔치 않은 더비에 입한다. 중계가 없고 북한에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경기를 관전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는 최근까지 몇몇 해외 여행자들이

남북전 관전이 포함된 관광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 사실과 배치된 내용인데, 현재 평양을 방문 중인 전직 K리그이자 북한 국가대표 출신 안영학(은퇴)도 14일 스포츠동아와의 국제통화에서 “입장권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해 신빙성이 있어 보였다. 결국 북한은 경기를 무관중으로 시작했다.

레바논 축구매체 ‘FA 레바논’도 1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남북전을 언급하며 ‘데자뷰(Déjà vu·첫 경험인데도 낯설지 않다는 의미의 용어)’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띄웠다. 지난달 평양 원정을 먼저 다녀왔던 레바논이 느꼈던 불편함이 한국이라고 다르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듯 했다. 남정현 기자